



해양부, 선박가격 연동형 선박펀드 첫 출시

용선료 수입통해 연 9%이상의 수익 분배

선박가격 등락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정해지는 새로운 형태의 '선가손익 참여형' 선박 펀드가 새로 출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동북아 27호'에서 '동북아 30호'까지 4개 선박 펀드의 판매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투자자 자금과 은행 차입금을 더해 그리스 선사인 '톱 탱커스(Top Tankers Inc)'사로부터 15만톤급 유조선 4척을 매입한 뒤 다시 이를 5년간 같은 회사에 임대하는 구조로 된 펀드이다.

따라서 5년 동안의 용선료 수입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연 9% 이상의 수익을 3개월마다 분배하며 200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특히 만기시에는 선박을 매각, 투자 원금을 상환하므로 투자자가 선박 가격의 손익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투자 수익률이 선박의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까지 출시된 34개 선박펀드는 만기 때 선박운항회사가 이미 정해진 가격에 선박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선박 가격과 투자자의 수익률이 무관했다.

해양부는 새로운 형태의 이 선박펀드는 독일 및 노르웨이 등 해양 선진국의 앞선 선박 금융기법을 도입, 해외시장 진출의 신호탄으로 동북아 선박금융 허브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그러나 만기 때 해운시황에 따라 선박 가격이 높으면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으나 하락시에는 수익률이 떨어져 원금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투자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북미 서안 항만 컨테이너 처리량 9% 증가

지난해 7개항만 중 4개 항만 두자리 증가율

지난해 북미 서안항만의 컨테이너화물 취급량이 9%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북미 서해안의 7개 주요항만의 컨테이너화물 처리량은 2,255만TEU로 지난 2004년의 2,066만 TEU에 비해 9.2% 증가했다.

각 항만별 컨테이너처리량 증감현황을 보면, 롱비치항은 670만9,000TEU로 전년도의 578만TEU에 비해 16.1%가 늘었으며, 오클랜드항은 227만3,000TEU로 전년대비 11%, 시애틀은 208만8,000TEU로 18%, 타코마는 207만 TEU로 15%가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LA항은 748만4,000TEU로 전년도의 732만,000TEU에 비해 2.2% 증가한데 그쳤으며, 포틀랜드항은 16만TEU로 전년도의 27만5,000TEU에 비해 42% 감소했다.

LA항과 롱비치항은 지난해 8,000TEU급 대형컨테이너선의 기항이 눈에 띄게 증가했지만 2004년도와 같은 항만 혼잡은 발생하지 않았다. 노사관계의 개선과 피어패스프로그램에 의해 트럭으로 옮겨지는 컨테이너화물의 3분의 1이 야간·휴일에 터미널외에서 반송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캐나다의 밴쿠버항은 176만7,000TEU로 6% 증가했다.